

■ 2026 새해설계 정인화 광양시장

“좋은 일자리 확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총력”

‘AI 접목’ 미래 신산업 육성·주력산업 혁신

북극항로 개척 추진…인력양성 센터 등 구축

“올해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 확대’,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고도화’를 핵심으로 삼아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선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통해 광양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역산업의 체질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AI인재 확보와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지난 2024년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기반 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미래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체합커뮤니티센터와 연료전지 구축을 완료하고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도 추

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한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다각화, 고도화하고 지역산업과 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시대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시가 발족한 ‘북극항로 개척 TF’를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개척 용역의 성공 추진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전문가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항만 중심 준설과 인력양성 교육센터 구축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건의한다.

백운산권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와 도선 천년동백정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광양을 미디어아트 관광명소와 사업과 백운저수지 둘레길 조성, 구봉산권은 체합조



형물을 준공하고 상상놀이터와 소재전문과학관, 통합주차장도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섬진강권에는 배알도 수변공원 캠퍼장 조성을 완료하고 신개념 숙박시설인 아트케이션과 모래마당

을 착공한다.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전아집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도 진행한다. 광양문화예술재단 출범, 문화원 건립, 문학동네 조성도 추진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태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행복지수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신 준비 부부 임신제 지원을 새로 마련하고 임신 축하금과 고령임부 의료비,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 출산전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공공수호조리원을 오는 3월 개원하고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심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키움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게 한다.

시의 모바일 원스톱 플랫폼인 ‘MY광양’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시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두렵고 빈틈없는 광양형 생애복지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환경과 안전을 시장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옥곡정 생태하천 조성, 성황·중마 도시생태숲 복원사업 준공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도시의 생태 회복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탄소저감을 추진한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통합관제센터를 연말까지 완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머무르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활인프라시설 확충안도 발표했다.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주변 등에 300면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만든다.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간 확포장도 상반기 준공하고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간 도로개설과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인화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는 곧 시장의 방향이다”며 “모든 민원은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고 이용하기 편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는 감동시정을 펼치겠으며 비상지지(飛上之志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겠다는 뜻) 각오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시작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곡성 소아과 상시 진료’ 고향사랑 지정 기부 3억 돌파

곡성군의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의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위한 목표 모금액인 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모금액이 당초 목표였던 10억원을 넘어서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은 지역 내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군은 2024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시즌1을 통해 출장진료 형태의 소아과 진료를 처음 도입하며, 의료 접근성이 취약했던 지역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출장진료는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소아과 상시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지난해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시즌2를 본격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시진료 전환을 목표로

7개월 간 누적 진료 인원 3000여명…의료 공백 해소

총 모금액 11억6000만원…마을빨래방 사업 추진도



곡성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의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위한 목표 모금액인 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사진은 소아과 진료 모습.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목표액 3억원을 달성했고, 실제 소아과 개시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문을 열며, 지역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전문의 진

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됐다.

상시진료 도입 이후 소아과 이용 실적과 군민 만족도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개원 이후 7개월간 누적 진료 인원은 3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곡성군 소아·청소년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전문의 진료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또 0~6세 영유아의 소아과 방문율이 개설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영유아 건강관리 지표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다.

곡성군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모금액은 11억6000만원으로, 연간 목표 모금액이었던 10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위한 3억원 모금 달성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필수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앞으로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을 비롯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빨래방 사업은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세해 어르신 건강 기원…경로당 찾아 ‘주민 소통’ 장흥읍사무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최근 지역 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안광기 신임 읍사무장의 첫 현장 행보로,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장흥군

‘동계훈련 메카’ 장흥, 9000명 선수단 맞이 완료

전남 스포츠과학센터 연계…체력측정·훈련 제공

장흥군은 2026년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전국의 우수 초등부 축구팀 31개팀 9000여명의 선수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전지훈련은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장흥군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훈련을 앞두고 장흥군은 지역 심천공원 축구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지역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을 실시해 동계 훈련팀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계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천문과학관 등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지원된다.

군에 소재하고 있는 도내에서 유일한 전남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해 참가 선수의 체력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참가 선수들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순천 송광사 경유 서울 직통 시외버스 개통

관광객·템플스테이 이용객 교통 접근성 ↑

보성에서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로 운행 중인 시외버스가 순천 송광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개통됐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성~서울 시외버스 노선은 운행 경로상 송광사를 지나면서도 정류장이 없어 무정차 통과해 왔다.

이로 인해 송광사를 찾는 서울·수도권 인근 관광객과 템플스테이 이용객들은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추가로 시내·농어촌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송광사 경유 노선은 지난해 11월 정류장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12월 준공해 하루 두 차례 매일 운행되며, 보성에서 출발해 별교, 송광사, 옥과 등을 지나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까지 운행된다.

해당 노선이 송광사를 경유하게 되면, 관광객과 템플스테이 이용객들의 이



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노선 개통에 따른 개통식이 송광사 스님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진행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류장 개설은 관광·종교 문화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농수산물 수출 1억2400만달러 기록

전국 군 단위 지자체 1위…‘세일즈 행정’ 성과

고흥군이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농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5년도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억 2400만달러(한화 약 1795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3년 연속 수출액 1억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달성한 쾌거라는 점에서 고흥 농수산물의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 뒤에는 군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군은 실적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공격적인 해외 세일즈 마케팅, 수출 시장 다변화,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군은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일본·중국에 머물지 않고, K-푸드 열풍의 중심지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눈을 돌려 ‘수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특히 군 관계자가 현지 판촉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것이 신규 판로를 뚫는 결정적 열쇠가 됐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수출 목표액을 1억5000만달러(2170억원)로 상향 설정하고, 신규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가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땅을 갈린 농어업인과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는 수출 업체, 행정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장흥군에는 전국 우수 초등부 축구팀 30개팀, 실업·대학·고등부 배드민턴 10개팀의 선수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은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